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3. 09. 18

정부·국회

중대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50~800억 원 건설 현장 집중점검

- ▲ 9.6. 현장점검의 날 운영, ▲ 긴급 안전보건교육 (9.4.~22.) 참여도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중주)은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인 9월 6일에 5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2023년 6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고사망자는 289명으로 전년 동기(318명) 대비 9.1% 감소했으나,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의 사망자는 57명으로 전년 동기(50명) 대비 14% 증가했다. 특히, 12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자는 28명으로 전년 동기(12명) 대비 두배 이상 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800억 원 건설현장 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점검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던 ①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등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②콘크리트 타설작업 관련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 현장소장 등은 9.4.~9.22. 지방관서별로 실시하는 긴급 안전보건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핵심 안전수칙 등 교육 내용을 현장의 근로자에게도 반드시 공유해줄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용운서(044-202-8902), 이철호(044-202-8904), 정수빈(044-202-8908)
건설산업예방정책과 강혜림(044-202-8941)

"건설경기 어렵다고 안전관리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돼"

-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서울지역 건설업 대표 간담회에서 20대 안전강령 실천 강조
- 지역 건설업 대표이사(CEO)와 산재 사망사고 감축 논의 및 특별 당부사항 전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중대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건설업의 대표이사(CEO)를 대상으로 9~10월 총 11차례에 걸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9월 12일(화)에는 「서울지역 건설업 대표이사와의 간담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중대재해 현황 및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에 대해 강연하고, 지역 건설업 대표이사(CEO)들과 효과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올해 전반적인 중대재해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사고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에도 대형 건설사들과 2차례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긴급 안전보건교육,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기간 운영, 추석대비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재해감축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류경희 본부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건설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안전관리가 후순위로 밀려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추석 명절 전후로 단 한 명의 부상도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대표이사들이 솔선수범하여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493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522

**추석 전후 3주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
(9.18.~10.6.) 운영**

- 추석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기경보 발령,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3주간을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오늘(9.18.)부터 본격 관리에 들어간다.

추석 연휴 전·후에는 급한 마무리 작업, 기계·장비의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휴가 등으로 인해 사고 및 부상 발생 위험성이 높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실제 최근 3년간(20~22년) 추석 전후 10일간 건설·제조·물류업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건수가 평소보다 20%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관리 기간에는 우선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지난 9.7. 발령했던 '추석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기경보'를 재차 안내한다. 또한, 9.20.(수) 전국 현장점검의 날에는 추석 연휴 전후로 안전조치에 소홀할 수 있는 현장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및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도 추석 연휴 직전(9.27.(수))까지 진행한다. 이에 더해, 추석 연휴기간(9.28.(목)~10.3.(화))에는 사업장의 사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신속 대응하기 위해 본부-지방노동관서-안전보건공단 비상대응체계도 운영한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추석은 온전히 마스크를 벗고 맞이하는 첫 명절이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가족 모두가 모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단 한 명의 부상도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용윤서(044-202-8902), 이철호(044-202-8904), 정수빈(044-202-8908)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554

안전보건공단

주간 사망사고 속보

- [8/28, 충북 청주] 지하 2층 환기실 진입 후 지하 3층으로 떨어짐(높이 3.3m)
- [9/4, 인천 중구] 장비 위에서 선반의 자재를 인출하던 중 떨어짐(높이 5m)
- [9/4, 전북 고창군] 분노 임시 저장탱크 내부에서 점검 작업 중 중독(추정)
- [9/6, 인천 부평구] 외벽 도장 작업 중 달비계 로프가 풀려 바닥으로 떨어짐(20m)
- [9/6, 강원 홍천군] 트럭에 적재된 자재를 하역하던 중 자재와 함께 떨어짐
- [9/6, 경기 의정부시] 방음터널 상부에서 작업 중 채광창이 깨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짐
- [9/6, 경기 광명시] 전기자 하부의 배터리를 해체하던 중 배터리가 떨어져 깔림
- [9/6, 경기 성남시] 아파트 균열보수 작업을 준비하던 중 떨어짐(20m)
- [9/6, 경기 양주시] 화재피난구 난간 고정 작업 중 아래로 떨어짐(20m)
- [9/6, 제주시 애월읍] 신호수가 이동중인 굴착기에 깔림
- [9/6, 경기 화성시] 신호수가 후진하는 덤프트럭에 깔림
- [9/7, 경북 울진군] 별도목이 떨어지며 아래에 있던 재해자가 별도목에 깔림
- [8/31, 경기 동두천시] 절개지 상부에서 굴착기로 인양 작업 중 떨어짐(높이 8m)
- [9/8, 충남 아산시] 크레인으로 적재 작업 중 파이프 다발 사이에 끼임
- [9/10, 충북 진천군] 금형 교체 후 작동 여부 확인 중 하강하는 금형과 틀 사이에 끼임
- [9/11, 충남 서천군] 파열된 배관에서 나오는 고온·고압의 증기에 노출
- [9/11, 경기 의왕시] 송수관 용접 작업 중 붕괴된 토사와 구조물에 매몰
- [9/11, 경기 용인시] 우수관로 매설 공사 중 무너지는 석축 옹벽에 깔림
- [9/5, 경기 양주시] 콘크리트 드릴믹서기를 이용하여 작업 중 감전
- [9/5, 경기 파주시] 벽면 도색 작업 중 압력밥솥을 개조하여 만든 페인트 혼합기가 폭발
- [9/6, 경북 포항시] 비탈면 아래로 움직이는 트럭을 저지하다 건물과 트럭 사이에 끼임
- [9/11, 강원 정선군] 집진기 필터 교체 중 사일로 내부의 석회 분말이 붕괴하여 매몰
- [9/11, 경북 경산시] 지게차 포크 위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떨어져 바퀴에 깔림
- [9/12, 서울 중랑구] 하수관로 보수 작업 중 흙더미가 무너져 매몰
- [9/10, 서울시 중구] 엘리베이터 로프 교체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짐(8m)
- [9/13, 대구 달성군] 불법폐기물 매립을 감시하던 중 트럭에 깔림
- [9/13, 경북 경주시] 옹벽 흠막이 지보공 설치 위치 확인 중 옹벽 방호벽 사이로 떨어짐(1m)

2023년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 추가채용 공고

- 건설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풍토조성, 자율적 안전활동 유도 및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를 모집합니다.
- 채용인원: 4명
 - 채용기관: 경기중부지사(1명), 전북지역본부(1명), 제주지역본부(1명), 충북북부지사(1명)
※ 지역별 채용 관련 문의로는 「붙임1」 채용공고문 마지막 페이지의 (별첨1) 공단 일선기관 소재지 및 관할구역 일선기관 연락처를 참고
 - 접수기간 : '23. 9. 11.(월) ~ 9. 25.(월)
 - 접수처 : 희망 근무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일선기관(4개)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지원자격 : 만 50세 이상 건설 실무경력 6개월 이상 또는 해당 자격 소지자
※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붙임1)」 참고
- 붙임 1) 2023년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 채용공고문 1부.
 붙임 2) 2023년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참여신청서 1부.
 붙임 3) 2023년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직무기술서 1부. 끝.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45777&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위탁)」수행기관 재공모

- 2023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위탁)」수행기관 재공모
- 보건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행을 위한 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수행기관을 첨부와 같이 추가(재)재공모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재해예방기관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4581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재난 및 산업안전에 관한 공공 발주자의 역할 토론회 개최

- '사후복구와 보상보다 사전예방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필요'
 - 학계, 공공기관, 정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안전관리방안 논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4일 '2023년 제9회 대한민국의 안전산업박람회'를 맞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재난 및 산업안전에 관한 공공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 토론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부문의 안전보건 역할이 점점 더 강화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기후변화와 기반시설의 집적화로 재난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건설공사의 대형화? 복합화로 새로운 유형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성균관대학교 박승희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재난안전분야의 토론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종일 교수가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서 현실적 대비와 정보공유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제하였다.

행정안전부 허익배 재난안전산업과장은 '재난안전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공공부문의 선제적 예방투자'를 강조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 이영목 안전혁신실장과 한국전력공사 김대한 안전보건처장은 각 기관의 '재난관리체계와 안전활동'을 소개하였다.

이어지는 산업안전분야의 토론에서는 충북대학교 원정훈 교수가 '공공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역할'에 발제하였고, 한국도로공사 임문규 안전혁신처 실장과 한국동서발전 이정우 안전보건처장은 각 기관 발주현장에서의 안전보건활동'을 소개하였고, 안전보건공단 김판기 건설안전실장은 '공공 발주자의 산재예방 역할과 책임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참석한 80여명의 공공기관 실무자들은 주요 공공기관들의 재난 및 산업안전에 관한 추진체계 및 주요활동과 현장 사례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안들을 공유하였고, 전문가들은 "재난 및 산업안전은 사후처리보다 예방중심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전보건공단 류장진 안전보건사업이사는 개회사에서 "공공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안전중심 경영체계가 최일선 현장에서 안착되고, 나아가 민간영역까지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45882&article.offset=0&articleLimit=10>